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신학

박희석*

I. 종교개혁가들과 언약신학	III. 고백서에 나타난 행위언약
II.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언약신학	IV. 은혜언약
	V. 결 론

소수의 현대 신학자들은 칼빈을 가리켜 언약신학자가 아니며, 그는 언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언약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칼빈의 신학은 서로 조화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고는 그러한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칼빈이야말로 언약 신학자이며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I. 종교개혁가들과 언약신학

언약신학은 언제부터 사용 되었으며, 개혁신학의 기둥과 주체가 되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언약신학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

* 신학과 교수



가? 언약이라는 용어는 개혁신학자들에게 넓게 통용되어 개혁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머레이 교수는 언약신학이 개혁신학과 칼빈주의 구조와 사상 발전에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¹⁾ 언약신학은 개혁주의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시가 될 뿐 아니라 그 위치와 중요성은 항상 인식되었다. 보스는 17세기 말 루터교회에서 몇 명의 신학자들이 언약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루터 신학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하였다.²⁾ 즉 언약신학은 개혁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언약의 개념과 용어는 재세례파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쾰링그리(Zwingli)가 고안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세례파들과 개혁가들의 투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쾰링그리에 의해 사용되었다.³⁾ 쾰링그리에 의해 소개된 언약신학 개념을 부링거(Bullinger)가 꽃을 피웠다.⁴⁾ 바커는 부링거가 언약신학을 신구약 성경의 총체적 요약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⁵⁾ 쾰링그리는 조건적 언약(conditional covenant)을 가르쳤지만, 부링거는 예정교리와 믿음으로 구원교리 및 법정적 언약을 강조하였으므로 반펠라기우스(semi-Pelagian) 개념의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다.⁶⁾ 릴백(Lillback)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273회나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칼빈 신학의 전체 사상이

1)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4,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216.

2) Geerhardus Vos,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d. by Richard B. Gaffin, J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80), 234.

3)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5), 137.

4) John Von Rohr,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7.

5) J. Wayne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Athens, OH: Ohio University Press, 1980), 12.

6) *Ibid.*, 25.



언약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 따라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의 개혁자들은 16세기에 이미 언약신학에 상당히 친숙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후크마에 의하면 언약신학은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와 터툴리안(Tertullian)이 영지주의(Gnostic) 이단과 투쟁하는 과정에 복음의 전통(tradition)을 가르치는 과정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중세교회에서 언급이 없다가 16세기에 개혁자들에 의해 가르쳐졌다.⁸⁾ 개혁자들 사이에서 언약신학이라는 용어는 칼빈이 사용하기 전 쾰빙그리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칼빈과 동시대 학자인 부링거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특히 부링거는 칼빈과 함께 신학적으로 많은 면에서 영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⁹⁾ 그 결과 영국 청교도들은 칼빈과 부링거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언약신학을 소개받고 연구하게 되었다.

퍼킨스(Perkins)는 언약은 하나님 작정의 외적인 표현이라 하였고¹⁰⁾ 프레스톤(Preston)은 하나님의 언약엔 3종류의 특징이 있다고 가르쳤다.¹¹⁾ 볼(Ball)은 1645년에 ‘은혜언약’이란 논문을 저술하였다.¹²⁾ 롤록(Lollock)은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강조하였다.¹³⁾ 롤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행위언약을 만드셨

7) Lillback, 222.

8) Anthony Hoekema, "Calvin's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Reformed View* 15(1962), 1.3.

9) John T. McNeil, 정성구,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355.

10) William Perkin, *A Golden Chaine: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y, in the Works*, (London: John Legatt, 1612), 1, p. 31.

11) 행위언약은 글(letter)에 은혜언약은 영(spirit)에 의존하며, 행위 언약은 두려움을 은혜 언약은 사랑과 자유를 주며, 행위 언약은 저주와 죽음을 은혜 언약은 의와 생명을 준다고 하였다. John Preston, *The New Covenant, Or The Saints Portion*, (London: 1634), 318-322.

12) Geerhardus Vos, 240.

13) Robert Rollbock, *A Treatise of God's Effectual Calling, in Selected Works*, ed. William Cunn, (Edinburgh: Wodrow Society, 1849), 33.

다고 가르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선행과 거룩을 전제로 한 인간과 맺은 행위언약의 본질이라 하였다.¹⁴⁾ 머레이는 룰록의 행위언약을 분석하면서 법률적 언약(legal covenant) 개념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관리(Adamic administration)하는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담과 맺은 법령(institution)의 구조와 해석에는 사용되어진다고 하였다.¹⁵⁾ 그는 행위언약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룰록은 개혁신학에서 고전적 언약개념의 특징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II.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언약신학

언약신학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러한 관심과 연구는 자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다른 대부분 고백서들은 개인이나 소수의 작은 그룹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졌다. 루터교의 아그스부르그(Ausburg)고백서는 멜란히톤(Melanchthon),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고백서는 우르시누스(Ursinus)와 올레비안누스(Olevianus)에 의해¹⁶⁾, 스코틀랜드 고백서는 닉스를 비롯한 6명의 요한(John)이 초안하였다.¹⁷⁾ 도르트(Dordt) 고백서는 화란 정부가 소집한 국제회의에서 개혁교회 대표들이 작성하

14) Ibid., 34.

15)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4, 220.

16) D. Clair Davis, 홍치모, 이훈영 역, “독일 개혁교회: 영향력 있는 소수와 칼빈주의자들”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ed. W. Stanford Reid,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147-155.

17) J. D. Douglas,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에 끼친 공헌”, ed. W. Stanford Rei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270, 여섯 명의 존(John)이며, 그들의 이름은 닉스(Knox), 스포티우스(Spottiswoode), 로우(Row), 더글라스(Douglas), 윈램(Winram), 윌록(Willock) 이다.



였다.¹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1643년 7월1일부터 1648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장기 의회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소집한 성직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평신도들로 구성된 전국적 회의에 의해 기초되었다.¹⁹⁾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해 처음 소집된 명단에는 평신도로서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성직자 121명 이었다.²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대표가 파견되었다.²¹⁾ 위원회는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동시에 준비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신앙고백서를 먼저 만든 후 그것에 기초하여 요리문답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1646년 12월 3일에 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완성되어 1648년 3월 22일 상하 양원이 통과시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신학에 대해 소수의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사상은 칼빈의 언약 신학과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롤스톤(Rolston) III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칼빈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 한다.²²⁾ 그는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율법을 주장한다고 한다.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고백서

18) W. Robert Godfrey, “네델란드의 칼빈과 칼빈주의”, ed. W. Stanford Rei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125-130.

19) John H. Leith, *Assembly at Westminster: Reformed Theology in the Mak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73), 26-30.

20) Larry J. Holley, “The Divine of the Westminster Assembly: A Study of Puritanism and Parliament”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9), 45-145. 이 논문은 웨스트민스터 회의 신학적 내용은 취급하지 않으나, 회의의 일정, 회원 등의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었다.

21) Ibid.,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성직자는 핸드슨(Henderson), 베일리(Naillie), 길래스피(Gillespie), 루더포드(Rutherford)이고, 장로는 메이트란드(Maitland)와 존스톤(Johnston)이다.

22) Holmes Rolston, III, *John Calvin versus The Westminster Confession*, (Atlant: John Knox Press, 1972), 15-17.

의 언약신학 방법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한다.²³⁾ 롤스톤은 신앙고백서의 언약신학이 칼빈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오르(Orr)는 언약신학은 칼빈의 생존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르친다.²⁴⁾ 밀러(Miller)도 언약신학은 칼빈으로부터 기원되지 않은 신학으로써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후계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라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 장에서 제목을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이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으면, 피조물들은 결코 그를 축복과 상으로서 즐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 언약을 주셨다.²⁵⁾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롤스톤의 주장처럼 은혜언약을 간과하고 있는가?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피조물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음을 밝히고

23) Kil Ho Lee, "A Comparative Study of Covenant Theology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Th. M. Thesis, Westminster Seminary, 1993), 53-85. 이 논문은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언약신학에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고는 이 논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더 깊은 연구를 원하면 참고하기 바란다.

24) James Orr, "Calvinism," in *Hasting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

언약을 통해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정을 불리일으키심으로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 하셔서 의를 향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지으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 하신다”고 하였다.²⁶⁾ 그러므로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는 수단이다.²⁷⁾ 이 부분에서 칼빈과 신앙고백서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신앙고백서는 이성과 의지와 양심을 지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밝힌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 보이는 도덕법이다.²⁸⁾ 칼빈에 의하면 이 도덕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the true and eternal rule of righteousness)으로 규정되었다.²⁹⁾ 따라서 이성과 지성적 피조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그 자신의 존재에 본질적으로 묶여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상급을 받은 것은 인간 스스로 행하는 순종의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은혜언약이 순종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³⁰⁾

칼빈은 그의 신명기 설교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가까이할 수 없는 거리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맺기를

26) Calvin, 『기독교강요』, 제2권 3장 6절.

27) Edward J. Young, “Confession and Covenant”, *Scripture and Confession*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3), ed., John H. Skilton, 38.

28)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147-165.

29) John Calvin, 박희석 역, 칼빈의 『십계명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1), 37-38.

30) A. A. Hodge,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161.

즐거워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과 언약을 맺도록 하셨다고 강조하였다.³¹⁾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반복하여 가르친다.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언약은 동일한 내용이며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부조화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다.

Ⅲ. 고백서에 나타난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즉시 에덴동산에서 시작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행위언약**에 대해 “사람과 처음에 맺으신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 거기서는 아담과 그의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한 생명의 약속이었다”고 가르친다.³²⁾

그러나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행위언약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성경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가혹한 비평을 하고 있다. 롤스톤은 그의 저서 *존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비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 주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롤스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grace)를 주시려고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고 한다.³³⁾ 그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은혜를 베풀었다는 가르침에 대해 많은 논쟁을 하고 있다. 롤스톤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가르치는 행위언약은

31)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179.

3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2절

33) Rolston, 17.

시대착오적인 신학이라고 강조 한다.³⁴⁾ 그는 지금이야말로 언약교리를 비신학화(mytheological)하여 독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때라고 설득한다.³⁵⁾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 것도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롤스톤은 신앙고백서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아담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었다고 가르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독소적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비신학화 하여야 한다.

롤스톤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 롤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학자들이 후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에덴동산 사건과 혼합시켜 언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에덴동산 언약의 기본적인 착상이 하나님께서 후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모델로 하여 창조 시대로 옮겨와서 만들었다”고 한다.³⁶⁾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모세 언약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롤스톤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이 에덴동산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가설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롤스톤은 신앙고백서가 모세 언약의 영향으로 아담 언약을 만들었다는 다른 증거는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웨

34) Ibid., 11.

35) Ibid., 17.

36) Ibid., 16.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근본적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며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 사상을 창조사건과 혼합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롤스톤에 의하면 신앙고백서가 율법을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칼빈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³⁷⁾ 이러한 증거는 은혜와 율법이 반대되는 것처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서로 반대된다고 반복하여 강조 한다.³⁸⁾ 그리고 그는 칼빈은 은혜를 강조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류를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창조명령을 바로 이해하였으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율법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역행 하였다고 한다.³⁹⁾

롤스톤은 신앙고백서가 율법을 강조하다보니 인간의 행위, 의무, 선행, 능력, 신뢰도, 재능 등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척도로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신앙고백서가 사용하는 용어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때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계약상(contractual) 문서이며 율법주의(legalism)라고 비난한다. 그는 신앙고백서의 언약에 나타난 상황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을 스스로 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롤스톤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의 의(righteousness)를 전가(impute)시킨다는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언약교리와 반대되는 견해를 밝혔다.⁴⁰⁾

토랜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언약교리는 계약상 문서라고 가르친다.⁴¹⁾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형태는 직설법(indicative)으로써 은혜를 강조하는데 비해 신앙고백서는 명령법(imperative)을

37) Ibid., 34.

38) Ibid., 36.

39) Ibid., 33-34.

40) Ibid, 16.

41) J. B. Torrance, "Covenant or Contrac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70), 23:53-54, Kil Ho Lee, 62-63.

사용하여 인간의 의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 한다.⁴²⁾ 예를 들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였으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순서를 변경시켜서 언약의 문장을 직설법보다 명령법에 우선을 두어 율법주의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리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등이다.⁴³⁾ 토랜스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언약을 계약서식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여 조건적으로 변경시켰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은 계약서식(contractual)을 따른 것은 아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중요한 계약을 맺고 서명하였다면, 그것을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나님과 아담은 동일한 위치가 아니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아담은 순종만 하였다.⁴⁵⁾ 머레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행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 한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Young)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가르치는 언약에 관한 기록의 정확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한 신적 경륜(divine administration)이 언약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고백서에 나타난 용어가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데 초점이 있다. 신앙고백서에 나타

42) Ibid., 56.

43) Ibid.

44) Ibid.

45) Louis Berkhof, 권수경, 이상원 역, 『조직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424-425.

46) John Murray, 박문제 역, 『존 머레이 선집 2: 조직신학 II』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61.

난 아담의 경륜에 관한 기록의 원인, 수립, 합의, 성격 모두는 성경의 기록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아담과 그 후손을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 편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분명히 신적인 언약(divine covenant)으로 인정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⁴⁷⁾고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언약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6:7에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가르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창2:17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다.

머레이 교수도 소요리문답을 설명하면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관리하신 것을 “생명의 언약”이라면서 또한 “행위언약”이라 언급하였다.⁴⁸⁾ 머레이는 아담의 언약을 아담의 경륜(Adamic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아담의 경륜을 언약이라 부르든 아니든 그 사건은 두 번 다시 반복 될 수 없는 오직 단 한번 뿐인 단회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역설 한다.⁴⁹⁾ 머레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은혜를 강조한다. 그는 이 말씀에서 율법적 언약 개념을 떠나 오히려 은혜의 특성이 인식되고 강조되었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 불

47) Edward J. Young, “Confession and Covenant,” in *Scripture and Confession*. (Phillipsburg,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3), 54.

48) John Murray,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Collected Writings*, 4:262.

49) John Murray, 『존머레이 선집』 2:61. 머레이는 아담의 경륜을 설명하는 논문에서 성경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구속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담의 경륜에는 그런 점이 결여되었다는 견해다. 그러나 머레이 교수는 소요리문답을 설명하는 글에서 신앙고백서가 사용한 행위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낸 용어로 가르친다.

리어졌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머레이는 창 2:17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에서 행위언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릴백은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주로 시조 아담을 지칭하기보다는 전 인류를 뜻하기 때문에 칼빈은 전 인류가 행위언약을 맺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⁵¹⁾ 릴백에 따르면 칼빈도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은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행위언약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칼빈은 주석과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친다.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양심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칼빈은 인간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고 가르쳤다.⁵²⁾ “인간의 양심에 도덕적 본성은 원초적이고 창조된 대로의 선을 의미하며 어떠한 악이나 죄도 자연스럽지 못하다.”⁵³⁾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인간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표현이며⁵⁴⁾ 인간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억제할 수 없는 지식이라 하였다.⁵⁵⁾ 따라서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칼빈은 자연법(law of nature)이라 부르기도 하였다.⁵⁶⁾ 칼빈은 인간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에 따라 올바르게

50)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4:222.

51) Peter A. Lillback, "Ursinus' Development of the Covenant,"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LIII, (1980): 281, Kil Ho Lee, 67.

5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6절.

53) David C. Jones, *Biblical Christian Ethic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73.

54)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1963), 333.

55) 칼빈은 도덕법에 대해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기독교 강요』 2권 8장 1-2절, 2권 7장 3-4절, 3권 19장 15-16절, 4권 10장 3절, 4권 20장 2절, John Murray, 『존 머레이 선집』 1:193-204 등이다.

생활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친다.⁵⁷⁾

도덕법에 관한 칼빈의 이러한 가르침은 비록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법의 규제를 받았다고 가르친다.⁵⁸⁾ 인간의 마음에 자연법이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기록하였지, 첫 인간 아담에게 새겨지지 않았던 것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느 사람 때부터 그것을 마음에 심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법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⁵⁹⁾ 그러므로 도덕법에 관한 칼빈의 주장은 아담도 도덕법의 규제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이 시점에서 칼빈의 가르침에서 도덕법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칼빈에 의하면 도덕법과 모세 언약 법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앞에서 내적인 법(자연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고 묘사한 바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법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양심은 무작정 지속적으로 무감각한 잠에 빠져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에서 증거하고 감찰하며, 또한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차이를 제시하여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캄캄한 어둠속에 쌓여 있어서 이 본성적인 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 합

56)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22절, 2권 8장 1-2절.

57) Ibid.

58) Ibid., 제2권 8장 1-2절.

59)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1, 126.

당한지를 파악할 수조차 없으며 그것을 참되게 가늠하기에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게다가 사람은 온갖 교만과 야망으로 우쭐해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아직 자신을 제대로 바라 볼 수도 없다. 말하자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주께서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법에서 희미하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세차게 찌르시는 것이다.⁶⁰⁾

칼빈에 의하면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 바로 두 돌 판에 기록된 십계명이다. 도덕법을 요약한 내용이 십계명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도덕법을 인간의 마음에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양심이 무감각하여지고 교만하여서 본성적인 법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돌판에 기록된 법을 주셔서 자연법에서 희미하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칼빈에 의하면 창조 때 인간 마음에 새겨진 본성의 법과 십계명은 동일한 내용이다.

타락 전 아담의 마음에 십계명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이 본성의 법으로 기록되었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 자신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법에는 본질상 상급과 벌칙이 있기 마련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계명들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임은 물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¹⁾ 따라서 아담도 타락

60) Ibid., 제2권 8장 1절.

61) Ibid., 제2권 8장 4절.

하기 전이나 후에 양심에 기록된 법에 순종하면 생명의 축복을, 불순종하면 죽음의 벌을 받게 되었다.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나 후에 모두 도덕법으로써 그에게 규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칼빈이 말하는 도덕법인 본성의 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설명하는 법에 개념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롤스톤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본성적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⁶²⁾ 그는 “칼빈이 율법과 관련하여 모세가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을 말하였다”고 한다.⁶³⁾ 이는 칼빈이 말하는 도덕법을 무시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롤스톤은 반복하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칼빈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신이 칼빈을 떠났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롤스톤은 신앙고백서는 모세 언약의 율법 개념을 창 2:17로 옮겨와서 행위언약을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⁶⁴⁾ 아담에게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에는 아담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모세 율법의 영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계시의 점진적 발전성을 믿는 우리는 성경해석에 있어 후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빛과 원리 하에서 먼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앙고백서는 계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더 명확해지는 과정과 칼빈이 가르치는 인간 마음에 기록된 본성의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에 대해 해석하였을 것이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⁶⁵⁾

62) Rolston, 17.

63) Ibid.

64) Ibid., 16.



아담과 노아는 각기 그것들(생명나무와 무지개)을 성례로 간주하였다. 나무 자체가 그들에게 불멸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었고, 무지개도 태양 빛이 반대편에 있는 구름에 반사된 것에 불과 하므로 그 자체가 홍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에게 표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印)이 된 것이다. 사실 생명나무도 그 이전에도 나무로 있었고, 무지개 역시 무지개 그대로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형식이 새겨졌고, 그리하여 과거에는 없던 본질을 지니게 된 것이다. 아무도 이런 것들이 헛되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지어 오늘날까지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다.⁶⁵⁾

칼빈은 노아에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칼빈은 생명나무와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무지개를 남겨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 언약을 믿도록 하셨다. 무지개도 언약의 증표임을 믿도록 함과 동시에 생명나무도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이 생명나무가 언약의 증표가 된다고 한 것은, 그 자신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믿기 때문이다.

칼빈은 에덴동산에 심어진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나타내 보증하는 성례(sacraments)라 하였다. 오늘날 세례와 성찬이 사죄의 은총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외적 증표가 됨과 같이,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만이 성례를 수립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65) 이 부분에서 더 깊은 연구를 원하면 김인환, “칼빈과 언약,” 『총신대논총』 19 (2000), 44-70을 참고하기 바란다. 칼빈 신학에 나타난 행위언약을 잘 정리한 논문이다.

66) Calvin, 『기독교강요』, 제4권 14장 1절.

서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이 공인되는 인봉(印封)이라”⁶⁷⁾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가리켜 ‘언약’이라 부르시고(창 6:18, 9:9) 그의 성례들을 그 언약의 ‘표’라 부르시므로, 사람들이 언약과 비교하여 부를 수 있을 것이다”고⁶⁸⁾ 하여 성례는 언약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성례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언약이 공인되는 인봉 혹은 언약의 표(token)로 정의를 한 후,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를 성례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칼빈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고 믿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위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롤스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언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고백서에 대한 그의 입장은 실존주의 신학(existential theology)을 전제하고 있다. 롤스톤에 의하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재를 역사적 사건이 아닌 비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 한다.⁶⁹⁾ 아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롤스톤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우선하면서 더 강조한다면서 혹독히 비평 한다.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은혜교리에서 타락전선택론자(Supralasarian) 언약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전이나 타락 후 항상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고백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

67) Ibid., 제4권 18장 2절.

68) Ibid., 제4권 18장 6절.

69) Rolston, 14-15. 더 깊은 연구를 하려면 Kil Ho Lee, 69-72를 참고하기 바란다.



어 언약을 맺었다⁷⁰⁾고 밝히고 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를 논하며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흑백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와 율법은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두 속성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셋째 롤스톤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예정교리를 거부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정교리를 가르치며,⁷¹⁾ 언약교리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롤스톤은 고백서가 칼빈의 예정교리를 수용하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셨다고 믿는 것이 칼빈의 예정교리이며, 칼빈의 신학적 결정론주의(theological determinism)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불택자의 유기교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스런 구름에 쌓여있다고 한다.⁷²⁾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편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행위언약에 있어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비록 칼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아담을 관리하신 일에 대하여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칼빈의 신학에 나타난 아담을 관리하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언약은 동일하다.

IV. 은혜언약⁷³⁾

롤스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행위언약 교리가 칼빈의 신학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가르친 것처럼 캔달(Kendall)은 신앙고백서의 은혜언약 교리가 칼빈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주장한다. 캔달은 “칼빈

7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

71) Ibid., 제3장 1-8절.

72) Rolston, 116.



과 1649년까지 영국의 칼빈주의”라는 그의 저서에서 영국의 칼빈주의를 경험주의 예정론자들이라고 한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은 칼빈을 따르지 않고 배자와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유산이라 한다. 캔달에 의하면 퍼킨스나 에임스(William Ames)는 그들의 신학을 칼빈이 아닌 배자(Theodore Beza)로부터 도출하였다고 주장한다.⁷⁴⁾

캔달은 칼빈이 믿음(faith)을 논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수동적이거나 주어지는 것(passive or given)으로 가르치지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믿음을 인간의 의지로 노력하여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둘의 신학을 서로 다르다고 비판 한다.⁷⁵⁾ 그는 “칼빈의 신학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가르치지만, 신앙고백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⁷⁶⁾ 주장한다.

캔달은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 회개(conversion)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⁷⁷⁾ 그는 회개할 때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한다.⁷⁸⁾ 그러면 칼빈도 정말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는가? 칼빈은 회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고쳐서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수정하는 것이라고

73) 칼빈의 언약신학에서 은혜언약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를 원한다면 박희석, “칼빈과 언약신학,” 『총신대논총』 21(2002), 60-86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논문은 칼빈의 은혜언약에 대한 논쟁들을 소개하고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현대 신학자들의 논쟁에 답하면서 잘 정리하였다.

74)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210., Kil Ho Lee, 72-92.

75) Kendall, 200.

76) Ibid., 201.

77) Ibid., 21.

78) Ibid., 21.

가르친다.⁷⁹⁾ 칼빈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의지가 말살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악한 것을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⁸⁰⁾

캔달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신학은 칼빈이 사용한 확신(assurance), 권고(persuasion), 지식(knowledge), 이해(apprehension), 신념(conviction)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납하다(accept, receiving), 안식하다(resting), 영향받다(yieling), 답하다(answering) 등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회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결과로 표현한다고 결론을 내린다.⁸¹⁾ 그는 신앙고백서도 신앙을 칭의의 수단(instrument of justification)으로 칼빈이 사용하였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한다.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으로 이해하지만, 신앙고백서는 믿음이란 용어를 인간의 행위로 사용한다고 비판 한다.⁸²⁾

캔달에 따르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필요도 없는 생활을 해도 무방한 것처럼 칼빈이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캔달은 칼빈의 신학을 오해한 면이 있다. 칼빈의 언약신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 단위로 보편적 선택을 받았다고 가르친다.⁸³⁾ 칼빈은 보편선택에 속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부패한 생활을 하므로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이 양자의 위치에서 버림당한다고 가르친다.⁸⁴⁾ 보편적 선택에 포함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언약적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소수의 제한적 개인선택에서 제외 당한다. 이

79) Paul Helm, *Calvin and Calvinism*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55.

80) Calvin, 『기독교강요』, 제2권 2장 2절.

81) Ibid., 56.

82) Kendall, 201.

83)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Baker, 1984), vol. 1.448.

84) Calvin, 『기독교강요』, 제3권 2장 16절

부분에서 칼빈은 인간의 의무를 강조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의무에 대해 그의 신명기 설교에서 분명하게 가르친다. 후크마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칼빈 신학에서 언약의 일원이 되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언약이 요구하는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주권으로 그 사람을 특별한총인 영생으로 선택했다는 표(sign)다”.⁸⁵⁾ 칼빈의 언약사상에서 인간의 의무가 강조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한다. 이는 인간의 의무를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캔달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캔달은 신앙고백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비평을 한다. 신앙고백서는 신앙에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효과적 부름**이란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시인하신 때에 말씀과 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날 때부터 빠져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옮기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이해 하고, 구원을 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취주시며,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며, 전능하신 권능으로 선을 향한 그들의 소원을 확고하게 만드시며,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며,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오도록 하신다.⁸⁶⁾

85) Calvin, *Calvin's Sermon on Deuteronomy 10:15-17*. Anthony Hoekema, 152.

8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절.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자신들이 그 일을 스스로 원하여, 그들의 이성적 판단의 결정에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완고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나가게 하신다.⁸⁷⁾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일을 원하게 되어 자극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다.⁸⁸⁾

칼빈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의지가 새롭게 됨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면서 설명한다.⁸⁹⁾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올바른 것을 향하여 열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마치 돌이 변하여 살(肉)이 되는 것과도 같다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대신한다. 단언하거니와 그 의지가 지워진다. 그러나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회심한다 해도 그가 본래 부여 받은 본성의 본질적 요소는 모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지가 비로소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탈바꿈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단언하거니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⁹⁰⁾

87) Gordon H. Clark, 나용화 역,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154.

88) A. A. 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272.

89) Calvin, 『기독교강요』 제2권 3장 6절.

90) Ibid.



칼빈에 따르면 죄인이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 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신앙고백서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영적인 일도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구원을 동반하는 영적인 선을 원하는 의지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기 때문에 자연인은 선을 싫어하며, 죄 안에서 죽었으며,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향해서 돌아서거나 준비할 능력이 없다.⁹¹⁾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켜 은혜상태로 옮기실 때에는 죄 가운데서 출생한 노예 상태의 그를 해방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영적 선을 자유로 원하며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⁹²⁾

고백서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 그의 영혼은 도덕적,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으며, 애착심도 비뚤어졌기 때문에, 모든 선에 대하여는 완전히 무능하여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가르친다.⁹³⁾ 그래서 자연인으로써 스스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 나갈 능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위해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⁹⁴⁾

캔달은 칼빈이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 율법의 저주적 기능을 통해 사

9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3절.

92) Ibid., 제9장 4절

93) A. A. Hodge, 214.

94) Paul Helm, 59.



람이 준비하는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⁹⁵⁾ 캔달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단계로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인 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칼빈 신학에서 이탈하여 배자(Beza)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⁹⁶⁾ 그는 청교도들은 항상 회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서 시간적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복음적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⁹⁷⁾ 캔달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칼빈은 회개의 전 단계로 믿음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며, 거울처럼 우리의 죄악 된 부분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⁹⁸⁾ 칼빈은 도덕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율법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냄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불의(不義)에 대하여 깨우치고 정죄하는 부분이다.⁹⁹⁾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그 죄악이 커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불순종이 범죄에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서는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무장시킬 수밖에 없다...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우리 앞에 확실하게 제시해 놓으셨으나, 우리의 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뒷받침 없이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95) Kendall, 26.

96) Ibid., 37.

97) Helm, 64.

98) Calvin,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6절, Kil Ho Lee, 80-84.

99) Ibid., 제2권 7장 6절.



푸시는 그의 긍휼하심이 더욱 사랑스러워 진다.¹⁰⁰⁾

이는 곧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서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은 상태인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숨기시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주의 의와 공로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지어 가련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까지도 그의 얼굴이 환히 빛나며, 은혜와 온유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¹⁰¹⁾

칼빈은 반복하여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하므로, 스스로 절망에 빠진 것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율법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는, 그 동일한 인도를 받아 우리 자신 속으로 계속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로,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커녕 그의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율법을 이행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로써 반드시 우리 자신의 덕성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생기게 된다. 이 양심은 그 불의에 대한 중압감을 느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 생기지

100) Ibid., 제2권 7장 7절.

101) Ibid., 제2권 7장 8절.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무기력한 증거들에 짓눌린 양심은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겸손과 자기 비하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자기를 위협함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여,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게로 돌아가며 그것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는 동시에, 무언가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바라게 된다.¹⁰²⁾

칼빈 신학에서 율법의 첫째 기능은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여 회개와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한다.¹⁰³⁾

회개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칼빈은 인간의 의지가 하는 역할이 일치한다는 견해이다. 모두가 자연인으로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거울을 통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 회개에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칼빈과 고백서의 신학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없다.

켄달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회개는 새 언약의 조건(condition of new covenant)이라는 언급을 비록 분명하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고백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으로 주장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고 불평 한다.¹⁰⁴⁾ 그는 신앙고백서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옛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새

102) Ibid., 제2권 8장 3절.

103) Helm, 69.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한다.¹⁰⁵⁾ 즉 옛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¹⁰⁶⁾ 그는 비록 신앙고백서의 신학이 새 언약에서 단순한 믿음만 요구했지만, 그 믿음은 의지의 결단에서 오는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든지, 최소한 그것을 행한데 대한 보상으로 기록하고 선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¹⁰⁷⁾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함을 대요리문답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다. 또 그들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모든 택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¹⁰⁸⁾

비록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가 ‘조건’(condition)이나 ‘요구’(requir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의미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 요구하는 공로적(meritorious) 선행을 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령이 택자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하도록 한다고 가르친다. 성령의 능력이 중생 받은 영혼에 역사하여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캔달이 말한 신앙고백서가 새 언약의

104) Kendall, 205.

105) Ibid., 206.

106) Ibid.

107) Ibid.

108)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32답

믿음과 신앙에서 인간의 공로를 조건적으로 가르친다는 논쟁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중심 사상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시대를 통해 다양하게 계시되었지만 그 본질은 둘이 아닌 동일한 하나의 언약임을 가르친다.¹⁰⁹⁾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실시되는 방법이 달랐다. 율법 하에서는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양과 그 밖에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예표와 규정들로 실시해서,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선택된 자들이 믿도록 가르치며 장려하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며, 그 언약을 구약으로 부른다.¹¹⁰⁾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복음 하에서 언약을 실시하는 규정은 말씀을 전파 하는 것과,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성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규정들은 수효가 적고 실시 방법이 단순하여 외면적으로 찬란하지 않지만,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신약이라 부르는 이 언약을 더욱 완전하고 명백하고 영적으로 힘있게 제시한다. 그러므로 다른 두 가지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방법이 다른 동일한 언약이다.¹¹¹⁾

고백서에 따르면 은혜언약의 실시방법에 외면적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복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변화도 없이 동일하다. 옛

10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6절.

110) Ibid., 제7장 5절.

111) Ibid., 제7장 6절.



경륜 하에서 이 언약은 주로 예표와 상징적 규례들로 실시했으며, 이에 표와 상징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유대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고백서는 이 언약의 새로운 실시는 옛 실시방법보다 단순하고 분명하며 충만하고 확실하며 영적 능력이 있으며 적용 범위가 제한 없이 넓은 것이 특색이다.¹¹²⁾ 고백서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모두 그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V. 결 론

우리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칼빈은 언약신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칼빈 이야말로 언약 신학자임을 확인하였다. 칼빈과 신앙고백서의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앙고백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가르친다.

언약과 믿음에 관해 칼빈과 신앙고백서는 모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도는 누구도 믿음과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캔달은 회개에서 고백서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므로 칼빈의 신학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칼빈도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학이 동일하다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칼빈과 신앙고백서 모두 회개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역으로 인간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가르친다.

112) A. A. Hodge, 172-173.